

+ POSRI 보고서

‘16년 원료가격, ‘04년 이후 최저 예상

허진석 수석연구원, 동향분석센터 (jshuh@posri.re.kr)

[목 차]

1. 철강원료 본격적인 저가격 시대에 재 진입
2. 2016년 철광석 가격, 2004년 이후 최저 수준 예상
3. 2016년 원료탄 가격 추가 하락 전망
4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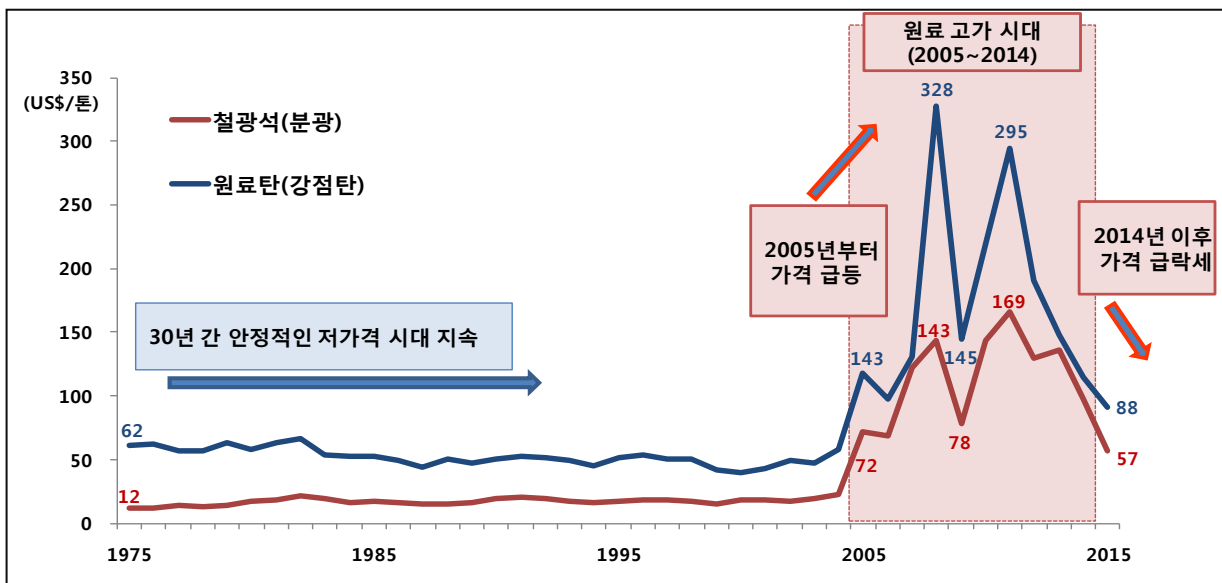
- ‘15년 12월 분광과 강점탄 가격은 1월대비 각각 41.2%, 29.6% 하락
 -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철강생산 감소와 메이저 원료 공급사들의 경쟁적 생산 능력 확장 및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기인함
 - 또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, 자원 보유국인 호주·브라질 통화의 약세, 해운경기 회복 지연 등도 철강원료 가격의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
- 2016년 분광 톤당 평균가격은 47\$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 예상
 - 중국 등 철강생산 성장 정체 영향으로 세계 철광석 수요는 금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비 2.7% 감소하고 내년에도 0.2%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
 - 세계 조강생산은 수요 약세에 따라 2015년에 2.4% 감소 전환 후 중국 영향으로 2016년에도 0.8% 미증에 그칠 전망
 - Vale, Rio Tinto, BHP 빌리톤 등 Big 3사는 2014~2016년 중 철광석 생산 능력을 총 215백만톤 확장하는 등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을 가속화
 - 2016년 분광 톤당 평균가격(Spot)은 47\$, 괴광과 펠렛 가격도 각각 50\$대, 60\$대로 추가 하락 예상
- 2016년 강점탄 톤당 Spot 가격은 81\$, 미점탄 66\$, PCI탄 70\$로 약세 지속
 - 금년 세계 원료탄 수요는 1% 내외의 소폭 증가 반면 최대 수출국인 호주의 수출 고수준 등에 기인 (세계 무역 중 호주 수출비중은 2016년 68% 예상)
-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의 10여년전 수준 회귀는 철강가격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 예상
 - 최근 원료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 10여 년간의 고 가격기에 비해 철강 가격에 원료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, 철강 제조원가 중 원료비 비중 (50% 상회)이 가장 높아 철강가격 약세 요인으로 작용
- 따라서 중국 Shock 등으로 원료·철강 저가격 시대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철강업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ost Leadership의 확보가 중요할 것임

1. 철강원료 본격적인 저가격 시대에 재 진입

□ 2015년 12월 분광과 강점탄 가격(Spot 기준)은 각각 톤당 40\$, 76\$로 1월대비 41.2%, 29.6% 하락함

○ 현재의 분광과 강점탄 가격 수준은 과거 Peak (분광:2011년 평균 169\$/톤, 강점탄: 2008년 평균 328\$/톤)대비 각각 76.3%, 76.8%나 급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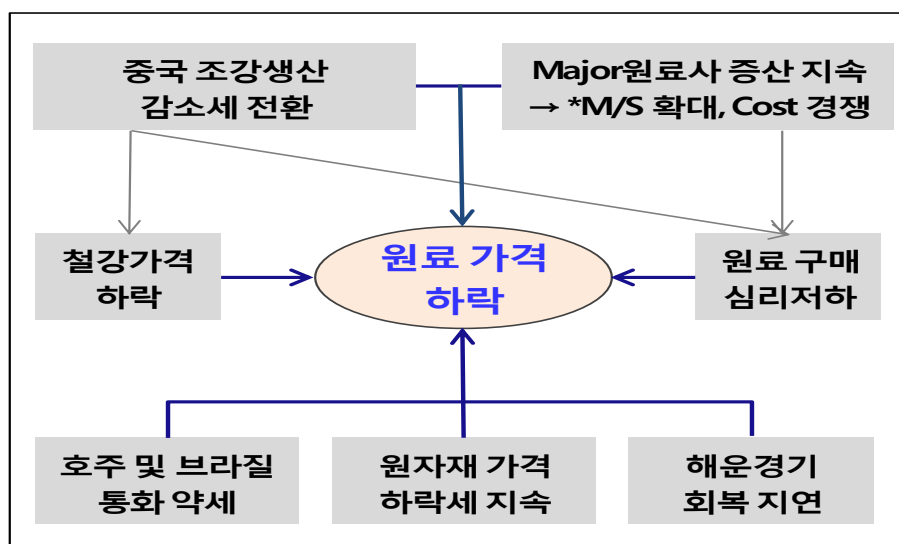
<철광석, 원료탄 가격의 역사적 추이>



자료: Platts 등

○ 이러한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의 하락은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철강생산 감소, 메이저 원료 공급사들의 경쟁적 생산능력 확대 등에 기인함

<철강 원료가격 하락 요인 분석>



- 또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,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자원 보유국 호주·브라질 통화의 약세, 해운경기 회복 지연 등도 철강원료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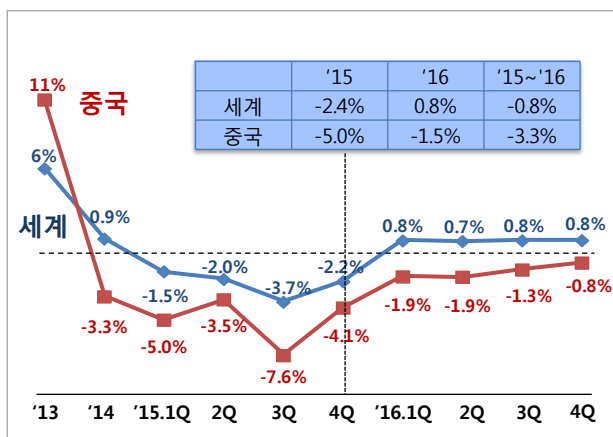
2. 2016년 철광석 가격, 2004년 이후 최저 수준 예상

□ 세계 원료수요, 중국 철강 수요·생산 감소로 2016년까지 성장 정체

- 철강수요: 미국, 일본 등 선진국 및 중국 등 신흥국 동반 침체로 2015년 전년비 2.4% 감소에 이어 2016년에도 0.8% 미증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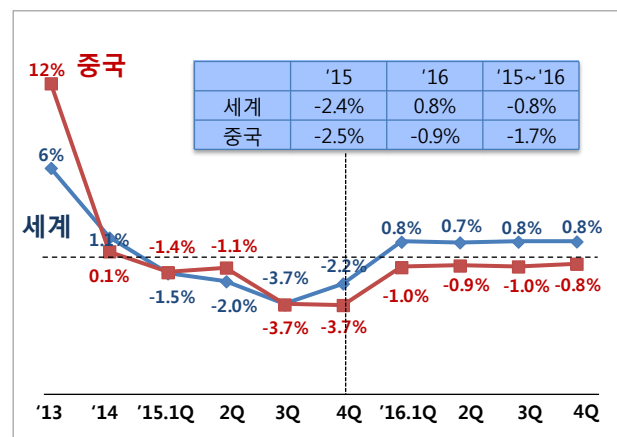
- 중국의 철강수요는 2013년이 피크로 추정되며, 경제성장 및 건설업 수요 둔화 등으로 2015년에 5% 감소 후 2016년에도 성장 정체 예상

<세계 및 중국 조강수요 증가율>



자료: POSRI, Worldsteel

< 세계 및 중국 조강생산 증가율 >



자료 : POSRI

- 조강생산: 글로벌 철강수요 약세로 2015년에 전년비 2.4% 감소 전환 후 중국 영향으로 2016년에도 0.8% 미증 예상

- 2015년에 중국, 미국, 일본, CIS, 중남미 등 대부분 지역의 조강생산은 감소한 반면 인도 등 일부 국가만 증가

- 철강생산의 성장 정체 영향으로 세계 철광석 수요는 금년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2.7% 감소하고, 내년에도 0.8%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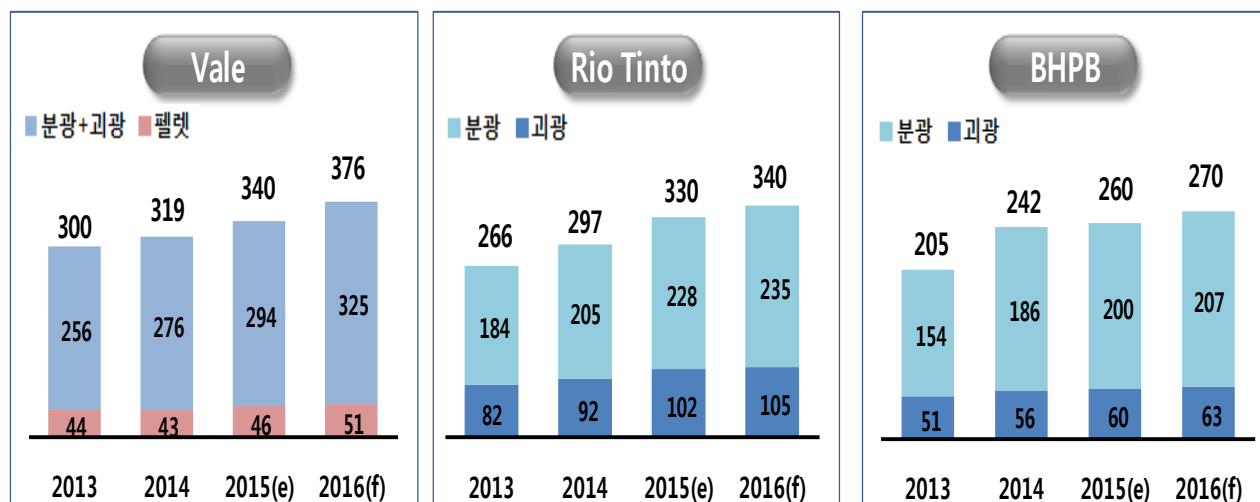
- 중국은 금년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4.3% 감소에 이어 2016년에도 1% 내외의 추가적인 감소 예상

- 세계 광종별 수요 추이를 보면, 분광은 중국 등 각국의 저급광 사용 확대로 인해 2016년 증가세 반면, 괴광과 펠렛은 각국 철강사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저가광 선호로 성장 정체

□ 반면 세계 철광석 공급 능력은 수요 성장 정세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 추세

- 세계 철광석 공급능력은 2014년 124백만톤 증가에 이어 2016년까지 추가로 82백만톤 확대 전망
 - 메이저 공급사가 위치한 호주,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의 생산은 증가 반면, 高 Cost의 중국은 뚜렷한 감소세
 - Custeel에 의하면 특히 중국의 정광 생산은 2015년에 약 9천만 톤 감소한 데 이어 2016년에도 6천만 톤 감축이 예상됨
- 한편 Vale 등 철광석 Big3사들은 신규 광산개발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을 지속하고 있음
 - Vale, Rio Tinto, BHP 빌리톤 등 Big3사의 2014~2016년 중 철광석 생산능력 확대 폭은 215백만 톤으로 세계 순 증가 206백만 톤을 상회하고 있음
 - Vale는 S11D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‘생산원가 최적화’, ‘펠렛 등 고품질 광석 생산 확대’ 전략
 - Rio Tinto는 세계 최저 철광석 Cost 수출업체를 지향하며 2014~2016년 중 74백만 톤 생산 증가를 추진 중
 - BHP 빌리톤은 2016년까지 270백만 톤 철광석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 원가를 U\$ 16/톤까지 하향화(운임/로열티 제외)하는 전략을 추진중임
 - 이들 3사가 수요 성장 정세에도 불구하고 확장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낮은 생산 원가에 대한 자신감과 글로벌 압도적 시장 주도업체 부재로 인해 감산 분위기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
 - Big3사의 2014년 세계 철광석 수출시장 점유율은 Vale 22%, Rio Tinto 20%, BHPB 16%임

<철광석 Big 3사의 광종별 생산 실적 및 전망 (백만톤)>



주 : BHPB의 분광/괴광은 판매 기준이며, 지분 100% 환산한 것임. Vale와 Rio Tinto는 생산량 기준
자료 : 각 사 생산실적 보고서, HSBC

□ 또한 금년에 호주·브라질 통화의 약세, 원자재와 해운 경기 회복 지연도 철광석 가격의 저수준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<철광석 가격 영향 요인 분석>

(전년비)	2015년		2016년
	상반기	하반기	
환율 (U\$ 기준)	U\$ 강세 (브라질: 2.97, 호주: 1.28)	U\$ 강세 (브라질: 3.59, 호주: 1.40)	U\$ 강세 (브라질: 3.75, 호주: 1.43)
해송운임(서호주-중국)	5.4\$/톤(2014년 8.1\$/톤)		6.8\$/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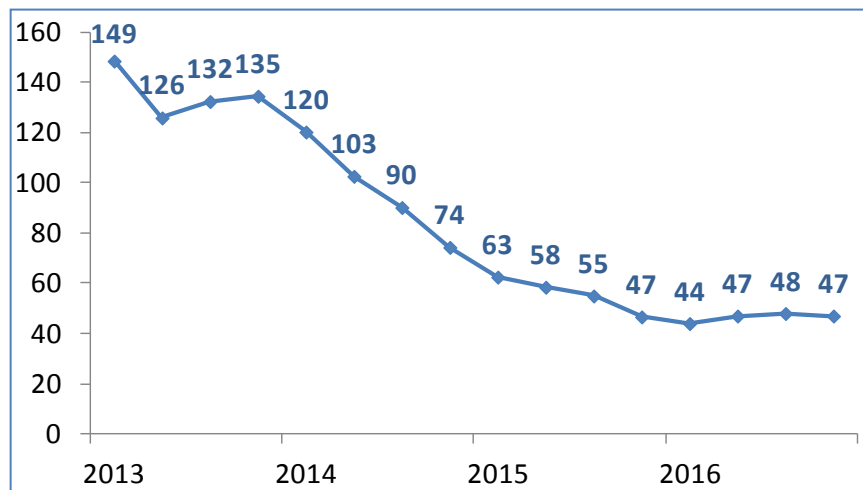
자료: RBC, Bloomberg, POSRI

□ 철광석 수급 등의 요인을 종합한 결과, 2016년 분광 평균 Spot 가격은 47\$/톤의 저수준 지속 예상(2004년 23\$/톤 이후 최저 수준)

○ 괴광 톤당 평균가격은 50\$대, 펠릿은 60\$대 수준으로 전망됨

- MBR, Macquarie, JP Morgan 등 주요기관들도 2016년 분광가격을 50\$/톤 내외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특히 Mysteel, Custeel 등 중국 기관들은 40\$/톤 내외로 예측하고 있음

<2016년 분기별 분광 Spot 가격 전망(U\$/톤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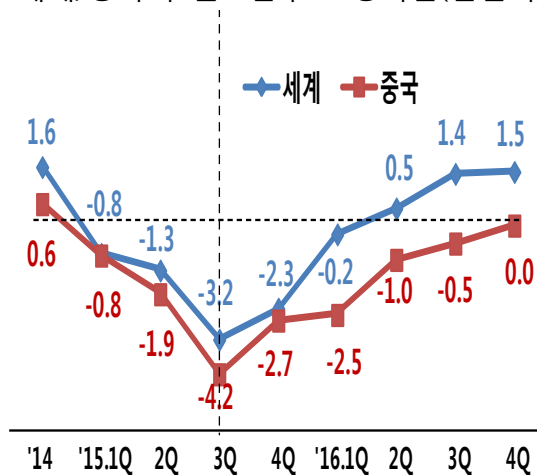
주 : Fe 62%, 중국 CFR 기준.
자료: POSRI

3. 2016년 원료탄 가격 추가 하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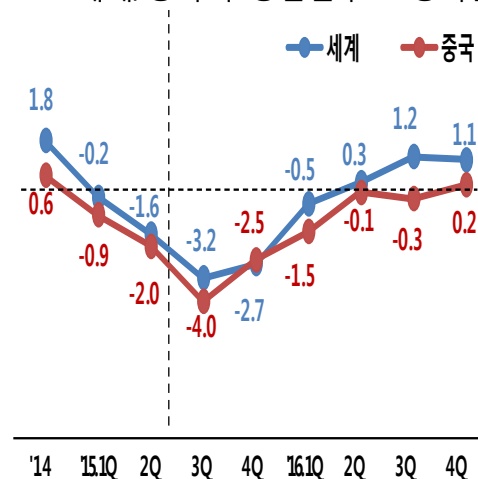
□ 금년 세계 원료탄 수요, 중국 등 철강생산 둔화로 성장 정체 예상

- 2015년 하반기에 세계 원료탄 수요는 전년동기비 4.6% 감소하고, 2016년에 1% 내외 미증
- 탄종별 수요는 강점탄은 미증 반면 , 미점탄, PCI탄은 소폭 증가 예상
 - 강점탄은 중국 환경 규제에도 불구하고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저성장 추세이며, 미점탄과 PCI탄은 저가탄 사용 확대에 1%대 증가세 전망

<세계/중국의 원료탄수요 증가율(전년비,%)>



<세계/중국의 강점탄수요 증가율(%)>



자료 : POSRI

□ ‘16년 호주의 원료탄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북미(미국, 캐나다) 등 타 지역 수출이 감소하여 세계 전체적으로는 소폭 축소 전망

○ 중국의 수입 축소 영향도 감안시 2015년 세계 원료탄 수출은 285백만 톤에서 2016년에는 275백만 톤으로 소폭 감소

- 중국, 철강생산 정체 및 위안화 절하 등에 따른 자국산 선호로 수입 감소

○ 최대 수출국 호주는 低비용 광산 다수 보유로 세계 무역중 수출비중이 2014년 63%에서 2016년에는 68% 수준으로 확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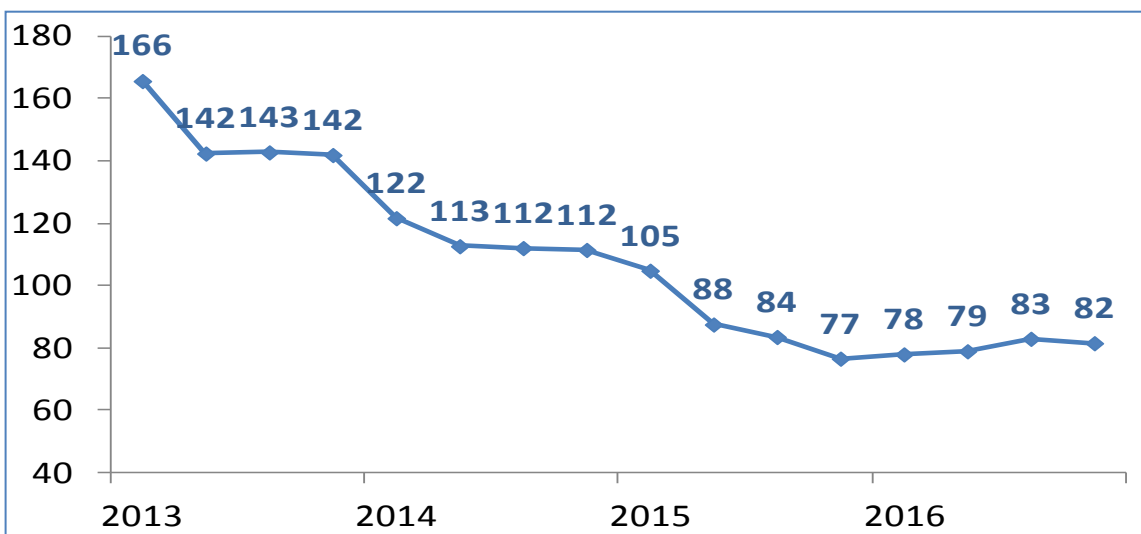
- 한편 미국 등 북미지역은 가격 경쟁력 열위로 수출량 대폭 감소 불가피

□ 한편 호주 통화의 약세, 원자재와 해운 경기 회복 지연도 원료탄 가격 저수준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예상

□ 원료탄 수급 등의 요인을 종합한 결과, 2016년 강점탄 평균 Spot 가격은 ‘15년보다 6\$ 하락한 81\$/톤으로 예상(2004년 58\$/톤 이후 최저 수준)

○ 미점탄의 톤당 평균가격은 66\$/톤, PCI탄은 70\$/톤 수준으로 전망됨

<2016년 분기별 강점탄 Spot 가격 전망 (U\$/톤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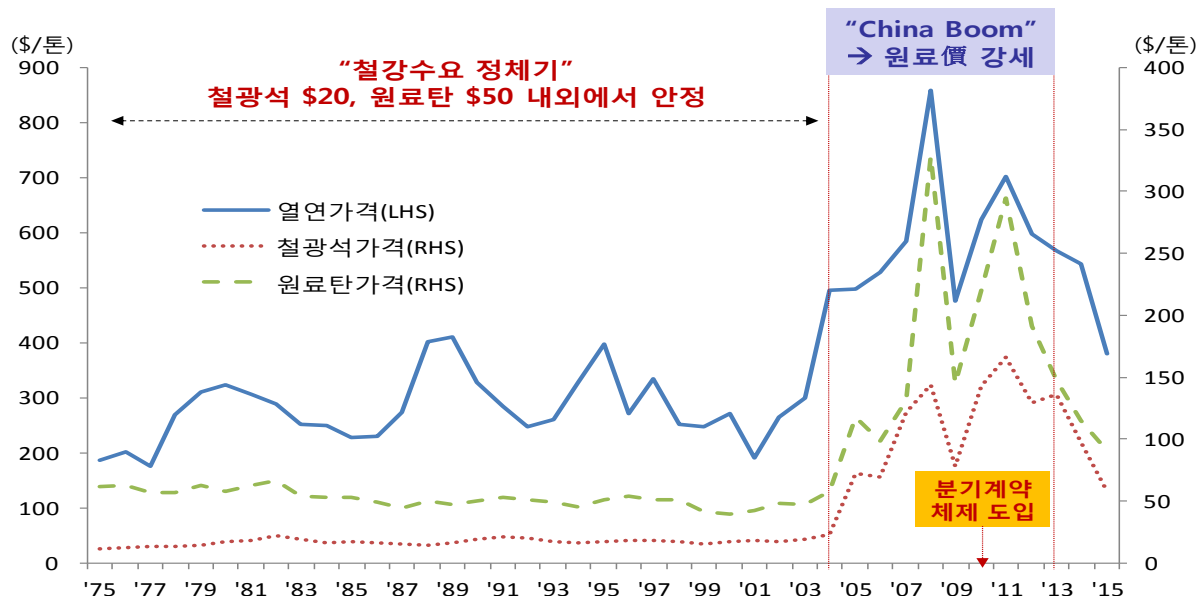
주 : 호주 FOB 기준.

자료: POSRI

4. 시사점

□ 2016년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은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되며, 이는 철강가격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<철강가격 및 원료가격의 장기 추이>



주: 세계열연수출가격(WSD), 분광 Spot가격(중국 CFR), 강점탄 Spot가격(호주 FOB)

- China Boom이 발생하기 전인 2004년 이전에는 철강가격에 비해 원료 가격의 변동이 미미하였으나,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조강생산과 원료수요가 급증하면서 철강과 원료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함
 - 최근 원료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 10년간의 고가격기에 비해 철강 가격에 원료의 영향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, 철강 제조원가 중 원료비 비중이 가장 높아 철강가격 약세 요인으로 작용 전망
- 따라서 중국 Shock 등으로 원료·철강 低가격 시대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철강업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ost Leadership의 확보가 중요할 것임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포스코경영연구원, “철강·원료가격 비교 분석 및 전망”, 2015.9.30

IB(투자은행) 리포트; MBR, Macquarie, JP Morgan, HSBC, RBC 등, 최근호

[홈페이지]

BHP 빌리턴(<http://www.bhpbilliton.com>)

Custeel(<http://www.umetal.com>)

Mysteel(<http://www.mysteel.net>)

Rio Tinto(<http://www.riotinto.com>)

Vale (<http://www.vale.com>)

Worldsteel(<https://www.worldsteel.org>)